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과제

□ 2000년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98년 이후 3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였음
- 수출은 전년비 20.1% 증가하여 95년(30.3%)이후 처음 두 자릿수 신장세를 회복하였으며, 수입은 설비투자 증가 등 국내 경기 회복과 국제 유가 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34.0% 급증하였음

□ 2001년 전망

-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수입 증가세 급減으로 무역수지 100억 달러 흑자의 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 그러나 대외 통상환경의 악화 및 주력 수출품의 단가 하락 영향으로 조선과 석유화학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주력 상품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무역수지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보완 과제

- (유연한 통상정책 필요) 미국 및 유럽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각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반덤핑 제소 및 제반 WTO 규정 준수에 유념해야 함
- (환율정책) 엔/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라 원/100엔 환율이 920원대로 하락하여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연한 환율 정책 필요(100엔당 1,000원 목표)
- (주력 수출 상품의 다양화) 미국의 경기 하강 조짐 등 해외 여건의 악화에 따라, 반도체, IT산업등 주력 수출 품목의 위축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수출 상품 개발에 주력
- (선진국형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 高환율 및 高유가 지속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입 규모 축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구축에 노력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과제

2000년도 수출입 동향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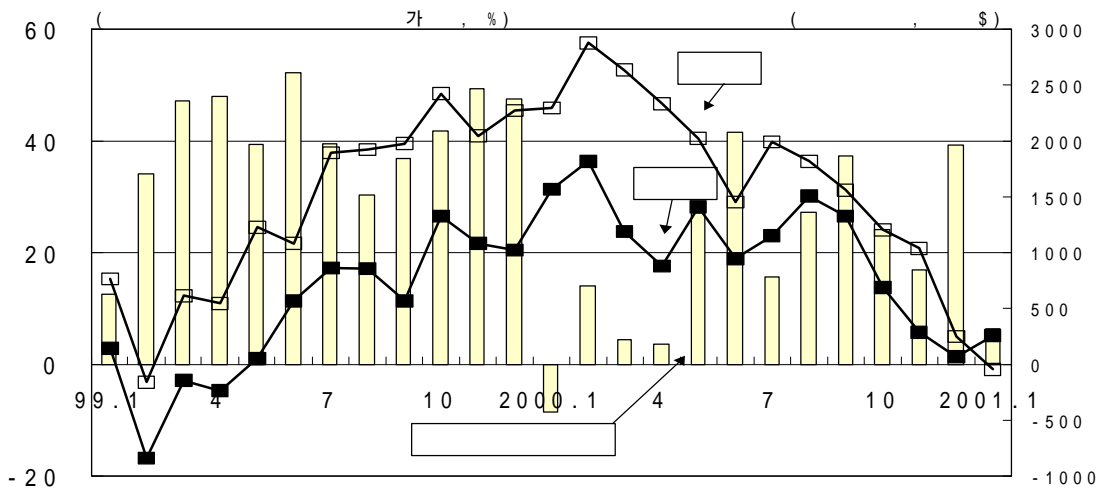
- (2000년도 무역흑자 121억 달러 기록) 98년 이후 3년 연속 세 자릿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음
 - IMF 이후 처음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확대 균형적 무역흑자를 시현하였음
- (수출) 전년 대비 20.1% 증가하여 95년(30.3%)이후 처음 두 자릿수 신장세를 회복하였으며, 경제 성장의 견인차적 역할을 하였음
 - 이처럼 수출이 호조를 보인 원인은 미국 경제의 장기호황, 중국 경제의 견실한 성장 그리고 아세안 등 개도국 경제의 회복으로 해외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수입) 설비투자 증가 등 국내 경기 회복과 국제 유가 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34.0% 급증하였음
 - 그러나 12월 들어 유가 안정 등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5.0%)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감하였던 수입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96년 1,503억불)을 초과하였음
 - 2000년중 수입 급증은 국제유가 상승 등 단가 상승 요인과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물량 증가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음

2000년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백만불, %)					
구 분	2000년			99년	
	1-11월	12월	1-12월	12월	1-12월
수 출	157,455 (22.3)	15,165 (1.4)	172,621 (20.1)	14,955 (20.4)	143,685 (8.6)
수 입	147,287 (37.4)	13,206 (5.0)	160,492 (34.0)	12,579 (45.4)	119,752 (28.4)
무역수지	10,169	1,959	12,129	2,377	23,933

- 2000년도 수출입 실적의 평가

- 98년 이후 3년 연속 세 자릿수 무역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3년간 무역흑자는 751억 달러를 기록하여 90년대 중반 8년간('90~'97) 무역적자 규모(667억 달러)를 완전히 상쇄할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증가분(151억불)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흑자폭은 전년(239억 달러 흑자)보다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¹⁾

<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2001년 수출입 전망

- (2001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전망)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수입 증가세 둔화로 무역수지 100억 달러 흑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경상수지 흑자폭도 작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수출 전망) 대외 통상환경의 악화 및 주력 수출품의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는 작년의 20.1%에서 10.8%로 둔화될 전망이다
 - 특히,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와 아시아 지역의 경기 둔화 및 미국의 경기 둔화, EU의 대외 통상 압력 가중 등으로 인해 수출 환경은 악화될 전망이다

1) 99년 에너지 수입액은 226.0억 달러였으나 2000년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377.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에너지 수입액 증가분이 151.1억 달러를 나타내었음. 또한, 에너지 수입액 증가분 151억 달러 중에서 원유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원화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출 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됨

- (수입 전망) 수입 증가는 국제 유가 강세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하강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작년의 34%에서 12.8%로 예상됨

· 유가 상승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 규모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입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임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1997	1998	1999	2000(E)	2001(E)
경상수지		-81.7	405.6	250.0	116.0	95.0
수출 (증가율)	통관 기준	1,361.6	1,332.2	1,436.9 (8.6)	1,726.2 (20.1)	1,912.0 (10.8)
수입 (증가율)		1,446.2	933.4	1,197.5 (28.4)	1,604.9 (34.0)	1,810.0 (12.8)
수출입차		-31.8	416.3	287.2	121.0	102.0

- (2001년 주요 산업의 수출 전망) 조선과 석유화학을 제외한 주요 수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이 11.3%에서 6.5%로 둔화될 전망이며, 정보통신은 37.3%에서 24.3%로, 반도체는 28.7%에서 17.5%로, 철강은 0.6%에서 -0.8%로 감소할 전망이다

2001년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업종	부문	1999년	2000년	2001년
자동차	수출(천 대)	1,510(10.8)	1,680(11.3)	1,790(6.5)
정보통신	수출(백만 달러)	21,045(56.3)	28,897(37.3)	35,919(24.3)
반도체	수출(백만 달러)	20,272(19.2)	26,083(28.7)	30,647(17.5)
조선	수출(억 달러)	74.9(-6.5)	82.0(9.5)	91.0(11.0)
석유화학	수출(천 톤)	6,237(-6.6)	6,000(-3.8)	6,120(2.0)
철강	수출(천 톤)	13,681(-15.6)	13,760(0.6)	13,655(-0.8)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반면, 조선은 9.5%에서 1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은 -3.8%에서 2.0%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무역수지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보완 과제

- (수출 여건 악화) 미국 시장의 위축 및 유럽지역 통상 압력 강화, 엔저 현상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대외 수출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유연한 통상정책 필요) 미국 및 유럽 각국에 대한 통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올해에는 통상환경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및 유럽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각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반덤핑 제소 및 제반 WTO 규정 준수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환율정책)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100엔 환율이 1,000원 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율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원/100엔 환율은 920원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특히 자본재 수입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원/100엔 환율의 안정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주력 수출 상품의 다양화) 수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주력 상품의 수출 둔화에 대비하여 수출 상품의 구조 개선 및 수출 지역의 다변화 등이 바람직할 것임
 - 미국의 경기 하강 조짐, 반도체가격 하락 지속, 유가 상승세 지속 등에 대비하여 특히 작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도체, IT산업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수출 상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고효율 및 고유가 지속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할 전망임에 따라 수입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산업이 대부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여 에너지 수입절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책도 따라야 할 것임 

천일영 연구위원 iycheon@hri.co.kr ☎ 3669-4028